

이천도예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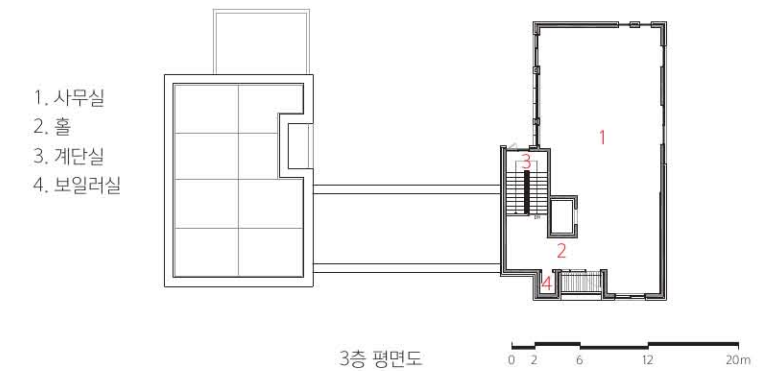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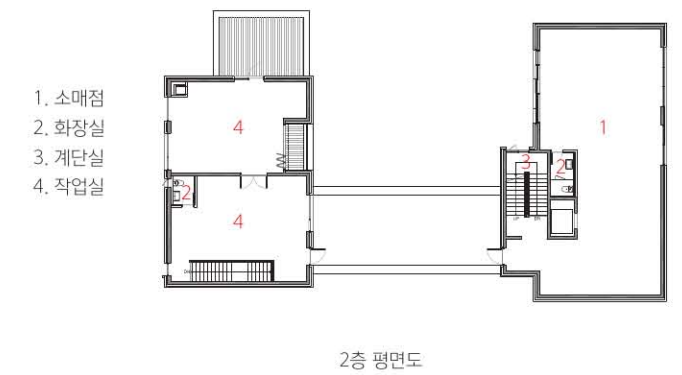
Icheon Pottery Studio

설계자 _ Architect. 이호락 _ Lee, Horak
 알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_ R.A.K Architects & Associates



건축주 | 이정미
 감리자 | 이호락 _ 알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동명건설(주)
 설계팀 | 정인환, 엄상준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62번길 170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991.30㎡
 건축면적 | 387.35㎡
 연면적 | 779.86㎡
 건폐율 | 39.07%
 용적률 | 78.67%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재 | 점토벽돌 치장쌓기
 내부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친환경 페인트
 설계기간 | 2019. 01 ~ 2019. 04
 공사기간 | 2019. 05 ~ 2020. 01
 사진 | 윤홍로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 허브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 정도설비
 - 전기분야 : (주) 나래디엔에이

Client | Lee, Jeongmee
 Supervisor | Lee, Horak _ R.A.K Architects & Associates
 Construction | Dongmyeong Construction
 Project team | Jung, Inhwan / Eom, Sangjun
 Location | 170, Dojayesul-ro 62beon-gil, Sindun-myeon, Icheon-si, Gyeonggi-do, Korea
 Program |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ite area | 991.30㎡
 Building area | 387.35㎡
 Gross floor area | 779.86㎡
 Building to land ratio | 39.07%
 Floor area ratio | 78.67%
 Building scope | 3F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ing | Brick clay
 Interior finishing | Exposed mass concrete, Eco-friendly paint
 Design period | Jan, 2019 ~ Apr, 2019
 Construction period | May 2019 ~ Jan, 2020
 Photograph | Yun, Hongro
 Structural engineer | Hub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 | Jungdo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Naray design & administration





이천도에공방은 이천도자예술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오랫동안 새로운 건축물을 기다리고 있던 부지였다. 처음 계획안은 단일한 매스에 공방과 전시장, 가마와 작업장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중정의 마당을 풀어 펼쳐진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에서 설계가 시작되었다. 건축주는 이 장소를 마주했을 때 작업장과 전시장으로 애워싸인 마당을 염두하고 있었다.

마당은 대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 연결된다. 3층으로 구성된 매스는 마당으로 분리되고 그 사이의 갤러리는 투명한 덩어리로 두 매스를 연결한다. 유리로 처리된 갤러리 공간은 대지동축의 천변공간과 마당을 시각적으로 개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마당으로 확장되는 갤러리의 공간은 이 공방의 방문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한 층 더 큰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건축물 전체는 모두 검은색의 벽돌로 쌓여 있다. 처음부터 도자기를 생산하고 전시하는 도예공방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도자기를 건축물에 직접 표현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도자기와 같이 소성과정을 거친

벽돌을 어떠한 과장 없이 그 자체로 건축물을 이루도록 의도했다. 조적조 자체의 양귀감을 살리기 위해 외부로의 창은 최대한 절제한 것도 순수한 재료의 성질과 매스를 존중하는 태도의 결과이다.

마당에 들어서면 반대편에 마주하는 가마는 노출콘크리트로 수성되었다.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벽돌건물과는 결이 다른 아이콘으로 갤러리의 유리면과 함께 마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또 다른 장치인 셈이다. 이렇게 개방된 전시장과 상부의 벽돌매스, 작업장과 가마가 마당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

건축물은 투명한 전시장과 갤러리 위에 떠 있는 덩어리이다. 다양한 이야기로 장소를 규정하기 보다는 소성재료의 물성이 단순한 덩어리로 인식되기를 의도했다.

1. 복층 전경 2. 마당 전경 3. 하늘뷰 4, 5. 1층 전시장 6. 1층 공방



영문설명

